

□ 2018년도 국제교류지원 2차 공모 문학분야 지원심의 총평

문학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li> <li>○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li> <li>○ 심의위원(가나다 순) : 박수연, 서영채, 조경란</li> </ul>
<p>이번 지원심의 대상사업은 총 네 가지 유형의 사업, 총 26건의 신청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였다.</p> <p><b>&lt;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gt;</b></p> <p>이 사업의 목적은 지원자들의 자율적 해외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한국 예술가의 역량을 국제 사회에서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결과적으로는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신청 건수는 총 2건이었다. 심사 기준은 크게 &lt;사업 계획의 충실성·타당성&gt; &lt;사업 내용의 예술성&gt; &lt;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gt;, &lt;사업 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gt;인데, 지원신청서 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2건의 개별적 ‘사업 내용의 예술성’(해당 레지던스사업에 관한 계획이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가?)과 ‘사업 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중 신청자의 계획이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국제교류 확대와 파급 효과의 기대에 대해 예측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업 계획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측면에 기울어져 있어 보인다는 점이 결과에 크게 작용하여 이 사업은 2건이 신청되었으나, 선정대상 사업을 “대상 없음”으로 결과처리하였다.</p> <p><b>&lt;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gt;</b></p> <p>심의회에서 이 사업의 본질적인 사업 목적에 주목했다. 이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우수한 해외 창작거점 기반에 국내 예술가를 파견하여 한국 문학인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 선정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하며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상기하여, 창작거점 레지던스 활동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큰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정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각 협력기관 별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최근 활동이나 발간 실적이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에 뚜렷한 목적과 활동 목적을 갖고 있는 지원자가 우선순위로 논의 되었다. 지원자들의 역량이 엇비슷해 보일 때는 지원서를 바탕으로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 효과를 예상해보았다. 그런 모든 고려 사항 중에서도 ‘신청인의 실적·경력을 볼 때 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의위원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였다. 최종 13건의 신청사업 중에서 총 6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p>

<p><b>&lt;국제예술교류지원&gt;</b></p> <p>이 사업은 총 9건의 사업이 신청하였고, 심의 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p> <p>몇 가지 사업 목적 중에서도 국내 예술인들의 창작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lt;초청사업&gt;에서는 초청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lt;공동협업&gt; 사업에서는 개최 목적과 공동협업이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우선, 타 지원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가, 사업 계획이 충실하고 타당한가의 문제를 두고 심의위원들이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9건의 신청사업 중에서 총 3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p> <p>다른 국제 교류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사익이 아니라 지원 사업의 목적이 향후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기를 당부한다.</p> <p><b>&lt;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gt;</b></p> <p>이 사업의 목적은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단계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사업의 수월성 및 충실성을 제고” 한다는 데 있다. 총 2건의 신청서에 대해서 심의위원들간에 토론을 거쳐 결국 2건 모두 지원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기획자들의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충분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성 및 관련 활동을 고려할 때 예술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단체(개인)가 제출한 사업계획은 예술위원회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가?” 등이다. 사업 계획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지원자의 최근 활동이 부족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사업계획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남겨 이 사업에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p> <p>* 지원신청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2018년 국제교류 2차 공모 문학분야 지원 심사를 마쳤다.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사업이다. 신청자의 더욱 뚜렷한 지원 목적과 이유 및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서 유념하여 지원하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사위원 일동</p>
--

□ 2018년도 국제교류지원 2차 공모 시각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시각예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li> <li>○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li> <li>○ 심의위원(가나다 순) : 문혜진, 안소연, 황석권</li> </ul>
<p>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2차 공모의 가장 큰 당위성은, 1차 공모기간에 미발표 혹은 미확정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하반기에 진행되는 교류 활동에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적합한 지원을 실행하는데 있다. 이에, 사업수행기간 및 추진계획의 정확성과 실현가능성에 공통의 기준점을 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총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내용을 각자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노력했다.</p>
<p><b>&lt;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gt;</b></p> <p>작가들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작가 개인마다 이유가 제각각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일상의 편안함을 벗어던지고 창작에 있어 스스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방편을 모색하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익숙하지 않거나 그로인한 불편함은 창작에 어떤 자극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다른 작가 혹은 비평, 전시기획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의 장으로서도 기능한다. 따라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해 하는 작업이 아닌 작가의 삶에 있어 다양한 경험치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작가들의 노력은 오늘도 치열하다.</p> <p>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lt;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gt; 부문에는 총 35건의 심사가 이뤄졌다. 지원기준과 항목에 부합하는 이들을 최대한 선정하려 했으며 지원심의에 필요한 서류 등이 제대로 구비됐느냐는 객관적 조건도 엄정히 따졌다. 생각보다 신청자들이 구비서류와 조건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이와 더불어 예산 집행 계획에 있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근거제시가 부족한 점도 심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지점이었다. 그러나 아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작가들은 자신이 참여하고자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이유를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었다. 또한 주로 유럽이나 미주권 등 문화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지역 편중이 꽤 개선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었다. 이는 최근 이른바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가가 프로젝트에 적합한 지역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것은 향후 이 공모에 지원하는 작가들에게도 영향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업에서는 총 35건의 신청건 중에서 14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p>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사업에는 총 3명의 작가가 지원했다. 2차 공모에서 선발하는 아르헨티나 프로젝트 에이스 피탈 레지던시 참가는 예술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아르헨티나 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1개월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한 3인의 작가는 아르헨티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자신의 작업과 연계한 작업의 계획을 내놓았는데, 3명의 작가가 각각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주제는 충분히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비교를 통해 작업으로 풀어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3명 모두 후보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사업에는 총 4건이 접수되었다. 우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그간의 운영사항을 체크했으며 각 기관이 특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집중해 살폈다. “쌍방향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목적성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었다. 국제교류는 1회성 사업에 그치지보다는 이후의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어질 사업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3건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사업의 경우, “중장기 문화예술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단계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사업의 수월성 및 충실성을 제고”한다는 사업목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3년 이내에 개최 확정된 국제교류 프로젝트에 한해 단계별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빙과 단계별 계획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빙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아쉽게도 지원자를 한 명도 확정하지 못했다.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이 사업은 2019년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의 취지에 맞게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지원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 방문 및 초청 프로젝트가 아닌 서로 간 리서치 교류의 성과에 보다 주목했다. 아쉽게도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지원자들도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한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한-덴 교류에 대한 전시 기획안이 많이 있었으나, 기획자의 시각이나 기획의 관점이 다소 미비하거나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보여 충실한 사전 준비의 필요

성을 크게 느꼈다. 심의위원들은 신청 조건에 부합한 서류에 한해서 내용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총8명의 지원자(팀) 중에서 2건이 선정되었다.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이번 국제교류 2차 공모 지원 사업 중 신청자가 가장 많았다. 총 81건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가 폭넓게 제시되어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두고 살피기보다는 개별적인 내용의 충실성과 예산 규모의 적합성 등을 주목해서 보았다. 지원규모와 항목이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던 만큼 명확한 기획안을 제시한 신청자들도 많았으나, 전시규모에 비해 항목별 예산을 과다 책정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사업 예산의 경우, 전시에 대한 규모와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항목이므로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신청자의 예술적 역량과 시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국제교류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에 보다 집중했다. 그 결과 총 81건 중에서 14건을 선정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심한 끝에 심의위원들은 각자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실현가능성과 예술적 성과를 꼼꼼하게 살폈으며, 지원 가능한 항목에 한 해 적합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끝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국내 미술 현장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로 심의에 대한 총평을 마친다.

**□ 2018년도 국제교류지원 2차 공모 연극분야 지원심의 총평**

연극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li> <li>○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li> <li>○ 심의위원(가나다 순) : 김경익, 정인숙, 이윤정</li> </ul>
<p><b>1. 심의 총평</b></p> <p>국제예술교류 연극분야 지원심의는 &lt;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gt;, &lt;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gt;, &lt;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gt;, &lt;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gt;, &lt;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gt;, &lt;국제예술교류지원&gt;, &lt;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gt;, &lt;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gt; 등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총 57건, 1,122,123,000원의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심의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국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15건, 187,500,000원의 사업을 선정하였다.</p> <p>심의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의견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신청 제한규정에 따라 한 신청인·단체가 당해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재신청한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배제하였다.</li> <li>2) 저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단체와 예술가들에게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가능 항목들을 엄격하게 분류하였다.</li> <li>2) 국제교류 사업인 만큼, 해외 협력기관의 교류조건,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의 실현가능성, 국제적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li> </ol> <p>국제교류지원의 특성상 해외 공연 경험이 많은 단체가 있고, 처음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최대한 공평성을 가지고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이제 해외무대에 우리 연극의 위상과 역량이 높아진 만큼 사업의 파급효과 또한 주요하게 살펴보았으며, 교민상대의 단순 일회성 행사 등은 원칙적으로 지양하였다.</p>
<p><b>2. 세부 심의평</b></p> <p><b>&lt;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gt;</b></p> <p>국내외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최를 지원하여 예술가들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단체의 선</p>

명한 개최 목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초청하고자 하는 해외 예술가의 세계적 명성, 국내예술가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2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체 중 한 단체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였고, 기존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한국예술가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므로 해당 레지던스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자의 세부활동계획을 검토하여 2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격려보다는 경쟁 차원에서 지원신청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과 익숙한 장르에 안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 발굴한 우수한 해외 창작거점 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해 예술가의 창작역량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레지던스 지원사업에 비해 지원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서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최종 1인 및 후보를 선정하였다.

####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중장기적인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사업의 수월성과 충실성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해외협력기관 또한 자국의 지원을 받아 상호 호혜적으로 리서치를 수행하거나 단계적 계획을 세워 꾸준히 사업을 발전시켜 온 2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부디 선정단체들은 본 리서치지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공동협업 제작까지 이어져 중장기적 발전으로 환류 되기를 기대해본다.

####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2019년 한국-덴마크 문화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협업작품의 사전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개의 신청단체 중 덴마크 극단과의 협업 목적이 뚜렷하고 세부 리서치 계획이 구체적인 1개의 단체를 선정하였다. 미선정된 단체는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1차 공모 때 중복으로 지원신청을 하였기에 배제되었다.

#### <국제예술교류지원>

총 33건의 신청 건수가 접수되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적은데다 경쟁률이 높아 선정된 사업들 또한 지원금액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사업목적이나 기획력은 좋으나 세부계획이 불분명한 경우나 지원신청서가 부실한 사업들보다는 사업의 독창성, 실현 가능성, 해외에 나갔을 경우의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경쟁률이 높은 만큼 해외협력기관의 교류조건이 좋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대체적으로 공동협업사업이 초청사업보다 지원신청이 많지 않아 국제공동협업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팜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초청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작품의 해외초청의 적합성, 해외초청기관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해외기관으로부터 좋은 교류조건으로 초청이 되었고, 예산 또한 적절히 산출하였기에 지원을 결정하였다.

#### <ARKO-PAMS협력지원(프로모션키트)>

국내 공연단체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홍보책자 및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다. 1개 단체가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단체는 이번 지원을 통해 활발한 해외홍보의 기회를 가지고 국제적 네트워크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

□ 2018년도 국제교류지원 2차 공모 무용분야 지원심의 총평

무용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li> <li>○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li> <li>○ 심의위원(가나다 순) : 김예립, 김서령, 홍혜전</li> </ul>
<p>국제예술교류 무용분야는 총 7개 유형의 사업을 심의하였다. 이번 공모는 총 72건 (1,287백만원)이 접수되었으며,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심의전에 미리 지원심의자료를 받아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심의당일 간단한 토론(심의 방향에 대해)을 거쳐 개별 채점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확정하였다. 선정 대상사업은 1. 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지원, 2.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 3.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 4.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5. 국제주요플랫폼진출지원, 6. 국제예술교류지원, 7.아르코팜스협력지원 등 총 7개 유형이며, 1차 공모와 거의 같은 조건이었으나 1차 심의에서 연간 예산의 80%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선정 건수와 예산배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심의기준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이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각 항목의 비중이 소폭 다르게 적용되었다.</p> <p>&lt;아르코국제레지던스개최&gt;와 &lt;국제예술교류지원&gt; 사업의 일부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해외 사업과 차등을 두지 않고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의 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개인, 특정 그룹 중심의 프로그램보다 광범위한 무용가 참여와 무용계 파급효과, 관객 향유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p> <p>&lt;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gt; 부문은 ‘자율형’과 ‘기획형’으로 나뉘어 심의되었는데, 자율형의 경우 해외 창작 레지던스(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활동을 대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해외 기관의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획형은 본 심의에서 후보 3인을 선발했는데, 영국 더플레이스(The Place)에서 선정하는 최종 대상자 1인이 지원을 받게 된다.</p> <p>&lt;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gt;은 중장기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에 맞춰 중장기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효과성을 고려했으며, 2019년 또는 2020년 확정된 사업에 대한 2018년 준비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하였다. 우수한 사업이 다수 있었으나 소액 분산지원보다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개의 사업만을 선정하였다.</p>

<국제주요플랫폼진출 한국-덴마크 리서치 지원>은 2019년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 한국-덴마크 문화예술의 해”를 추진, 덴마크 측과 협의 되어 신설된 지원항목으로, 2019년 공동(협업)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 하였으나, 두 단체가 1차 지원신청한 사업이었다. 1차 신청내역과 비교 검토하였으나, 사업 목적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지 않았다.

가장 높은 경쟁을 보인 <국제예술교류지원>은 총 48건이 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 가운데 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국내개최사업(인 바운드) 해외진출사업(아웃 바운드) 모두 협력 해외기관의 우수성, 국제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지역과의 교류, 보호 육성이 필요한 비주류 장르의 교류활동을 배려했으며, 장르와 지역, 세대 간의 고른 안배도 고려하였다. 우수한 사업이 많았으나 예산의 한계로 7개의 사업만을 선정할 점에 심의위원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ARKO-PAMS 협력지원(일반 공모)>는 서울아트마켓 팜스초이스(PAMS Choice)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기관 초청의 확정, 초청 조건, 기대성과 등을 중심으로 심의했으며, 3개 사업을 선정했다.

본 심의에서 다뤄진 7개 분야의 공통된 주안점은 협력이 예정된 해외 기관의 우수성과 초청 확정 여부, 참가하는 예술가/작품의 예술성, 기대성과 등이 되었는데, 특별히 해외 파트너의 초청조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국내 무용가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해외 활동을 하는 사례를 부각시켜 해외 진출의 바람직한 풍토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심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은 서류의 미흡함이다. 예술가 스스로 작성한 서류일 경우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음을 이해하나, 중요 항목의 부정확성은 성의부족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문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신청하거나, 사업명에 기재한 국가명과 계획에 밝힌 국가가 다른 경우, 부정확한 예산서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직접경비(항공료, 숙박비 등)만을 지원하는 사업에 개인적 인건비와 기타 활동비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선정되더라도 예산 배정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몇 년 간 한국 무용의 국제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고 과거와 달리 미개척 국가/기관이나 개인의 교류, 단순 해외 공연보다 현지와의 협력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교류 2차 심의에 선정된 사업 모두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바라며, 단기에 그치지 않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 2018년도 국제교류지원 2차 공모 음악분야 지원심의 총평

음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li> <li>○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li> <li>○ 심의위원(가나다 순) : 김원명, 윤승현, 최원선</li> </ul>
<p>2018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 정기공모(2차) &lt;음악분야&gt;에는 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등 3가지 사업유형에 총 58건의 사업이 신청되었다. 국제교류지원의 경우, 예산의 80%가 이미 1차 정기 공모에서 배정되었으며, 이번 2차 공모에서는 예산의 20%가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분야의 심의는, 1차 공모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그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사업수행의 측면에서 세 명의 심의위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어 국제예술교류지원 전체 분야(문학, 시각, 무용, 연극, 음악, 전통) 심의위원들에 의한 통합심의과정을 거쳤다.</p> <p>먼저, 이번 심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서술하면, 심의는 3가지 사업유형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의 전체적인 토론이 진행된 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개별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심의 대상을 한정된 후, 지원액 결정 및 예산액을 최종 배정하였다.</p> <p><b>&lt;국제예술교류지원&gt;</b>          이 지원사업에는 총 56건이 접수되었다. 심의는 '사업 계획의 충실성·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여도와 파급효과' 심의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신청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간의 토론을 거치고 개별 채점을 통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총 6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원신청서 상의 예산안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배정하였다.</p> <p><b>&lt;국제교류기획리서치지원&gt;</b>          이 지원사업에는 총 1건이 신청되었으나, "대상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 신청단체의 경우, 해외파트너의 적합성 및 사업계획의 독창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 지원사업은 다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국제사업, 중장기적인 접근과 기획이 요구되는 사업을 지원하며 명확한 지원목적과 함께 '리서치'로서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p>

**<ARKO-PAMS협력지원(일반공모)>**

이 지원사업에는 1건이 신청되었다. 이 지원사업은 팬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에 대해 지원한다. 이번 신청사업은 이 조건에 해당한다. 지원신청서 상의 사업 내용 및 예산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제교류 2차 공모 심의에서는 "음악으로의 국제교류"라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세부 조건들과 항목들에 맞추어 신청사업들을 평가하고자 심의위원들 간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전체 신청건수 58건 중 총 7건이 선정되었다.

이에, 이번 심의회의 선정 결과에 따른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검토 의견들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2차 공모는 1차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을 재차 지원하는 경우, 사업 내용에 대한 충실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둘째, 심의는 신청단체(개인)가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된다. 사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연주 내용, 연주 일정 및 장소, 관련 서류 등 명확한 증빙 서류 제시를 통해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사업 공모 안내 시 명확하게 제시한 지원신청 가능 항목에 한해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류'의 의미를 정리하며 총평을 마무리 하려한다. '交流'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분야에서 이룩된 문화나 사상 따위의 성과나 경험 등을 나라, 지역, 개인 간에 서로 주고받음'이다. 이를 '나라 대 나라'에 국한 시키면 그것이 바로 '국제교류'가 되는 셈일 것이다. 향후, 국제교류사업을 준비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다양한 국제문화예술교류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심의위원 일동

□ 2018년도 국제교류지원 2차 공모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전통예술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일시 : 2018년 4월 18일(수) 오전 10시 ~ 오후 6시</li> <li>○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li> <li>○ 심의위원(가나다 순) : 김진이, 서한우, 유민희</li> </ul>
<p>국제예술교류 전통분야는 3개 사업에 총 51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사업의 심의 기준 및 세부평가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장르, 교류 국가의 지역 및 기관의 신뢰도,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면밀한 심의를 통해 최종 7건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 없이 막연한 내용의 신청들도 다수 있었으며, 1차 공모 시 제출했던 서류를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한 경우도 적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선정자들께서는 성실한 사업 수행을 통해 국제적인 예술 활동을 펼치는데 소중한 기회로 삼길 바라며, 그 성과가 또 다른 성장으로 환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p> <p><b>&lt;국제예술교류지원&gt;</b></p> <p>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는 총 47개 사업이 신청하였고, 심의 기준인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사업 실현 가능성, 국제적 파급효과 등과 더불어 세부 장르 및 지원자의 지역 그리고 교류 국가의 분포까지 함께 살펴 최종 6건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이 없이 제출한 사업, 너무 비현실적으로 과하게 예산 규모를 설계한 경우, 의례적인 한국 관련 행사, 미확정사업들은 우선 감점 되었다. 또한 같은 페스티벌에 각각 다른 팀들이 참여하겠다고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도 보였으며, 전체 신청 중 미국 지역이 12건으로 1/4 이상을 차지하여 쏠림 현상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콘텐츠의 내용, 사업 계획의 구체성, 예산 등의 현실적인 전개 면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해 보였다. 앞으로는 본사업의 목적과 변화하는 흐름을 충분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무대를 향한 진취적인 역량을 더욱 보강해 주길 바란다.</p> <p><b>&lt;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자율형)&gt;</b></p> <p>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에는 각기 전혀 다른 성격과 규모의 3개 사업이 신청하였고, 다각도로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본 지원사업에 적합한 우수한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지 않았다. 차후 본사업의 신청자들은 본인의 사업 계획이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과 조건인지를 먼저 살핀 후 제반 필수 서</p>

류도 꼼꼼히 첨부하여 제출해 주길 당부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예술가들이 아직 참여가 저조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ARKO-PAMS협력지원>**

ARKO-PAMS협력지원사업은 팸스초이스로 선정되었던 작품이 해외에서 초청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공연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예술에는 1건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특별한 결격의 사유가 없고, 수준 높은 음악 무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되어 흔쾌히 지원을 결정하였다. 완성도 높은 음악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해 주길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